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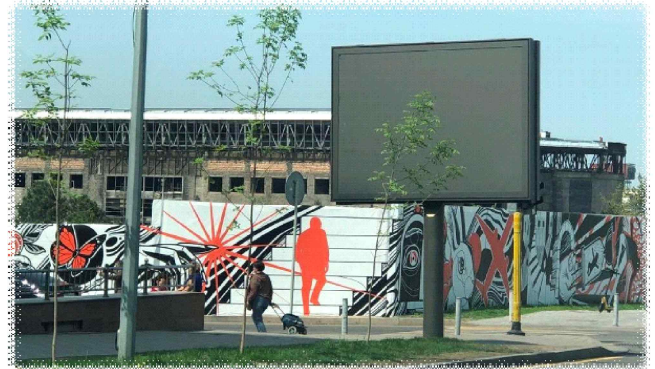
[2022-04 기업, 온유 편지]

이 시대적인 아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와 한숨, 기도가 치솟았지만, 이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둔감해졌습니다. 일상의 삶이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동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은 희석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 위에,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섬김,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ㄱ원 받은 것이 그 분의 희생 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을 바라보시고, 끝에는 평가하실 겁니다.

* 현지 상황 :

현지는 아주 천천히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사회는 '난민 문제'가 이슈지만 이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인들이 11만 명 넘어왔다고 합니다. 현지인들 중에서 상류층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평범한 현지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찍지 못했습니다. 복구되고 있는 시청 청사 2022-4>

* 가족 :

아내는 옆 집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천진난만하게 놀면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의 사고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12년 동안 동행하던 컴퓨터와 작별? 했습니다. 우루무치까지 갔다 왔던 추억의 컴퓨터였지만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컴퓨터에서 예전 자료들을 백업하면서 웃기도 하고,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정된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짧게나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한국 선생님 가정이 4년 안에 사역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희도 3년 안에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시의 더 치열한 삶 가운데서 가족들이 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 도시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ㄱ슬림이 강성하고, 이단들도 있는 곳에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그 분의 손짓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쁨모임



<왼쪽 사진 보면 '나일'이라는 아기가 소그룹 모임의 행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여성의 날 >

[두 손 제 목]

세 계

-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모일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예멘, 아프카니스탄, 에디오피아, 시리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북한, 신즈위그르자치구 등등)

가 족

- 저희 가정도 3년 안에 이 곳을 떠나 지방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 지방 도시에 가는 것을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 첫째 딸이 사춘기여서 그런지 피부가 예민한데, 피부를 보호해 주시도록
- 둘째 딸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기쁨(샤틀룩)모임

- 가난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날 수 있기를)
- 샤틀룩 모임의 가정 구성원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특히 남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 기쁨모임이 새로운 모임 장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 기쁨모임을 개척하셨던 한국선생님들께서 4년 안에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기쁨모임을 섬길 수 있는 현지 사역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 역

- 위어의 말서 완역본의 출간하는데, 영미권 선생님들과 한국 선생님들이 잘 협력해서 잘 출간될 수 있도록
- 연구소, 장학사역, 신선훈련사역, 구제 사역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쁨(샤틀룩)모임]

현지인들 모임 -> 새로운 모임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 연구소]

[중앙아 이슬람과 동방기독교 연구 모임]

[장 학 회]

[아구대(KZ외대) 위그르어과 학생 10명 - 학비 50% 지원 사역]

[신 선 모 임]

[C국으로 보낼 현지인 양성 훈련]

[구 제 사 역]

- * 지방도시 외곽 수도관 연결 사역 : 2022년 3월말 -5월 [최대 2가정]
- * 소아호스피스병원 방문 : 2022년 10월말-12월말

위의 사역들은 협력 사업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